

2009. 7. 20 제219호

# 세계도시동향

## 목 차

### 문화·디자인

1. 청년 예술가 100명에게 지하철 공연기회 제공 (런던)
2. 새로운 아크로폴리스 미술관 개관 (아테네)
3.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도쿄發·전통 WA 감동' 페스티벌 개최 (도쿄)
4. 심포지엄 '예술과 환경의 대화' 개최 (도쿄)
5. 고대 화석의 외형을 본떠 디자인한 자연사박물관 착공 (상하이)

### 산업·경제

6. 문화재산권 거래소 설립 (상하이)
7. 외국인투자자에게 입·출국 편의 제공 (상하이)

### 건강·복지

8. 쓰지 않는 휴대전화를 기증받아 가정폭력 예방에 활용 (런던)
9. 개관 60주년을 맞은 국제 청소년도서관 (뮌헨)
10. 실업자를 위해 공공근로 수급현황 정기적으로 발표 (북경)

## 목 차

### 행정·재정

11. 수도 캠페인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티 스토어 be Berlin’ 건립 (베를린)
12. 교외지역과 민생부문에 집중 투자 (북경)

### 방재·안전

13. 새로운 ‘비상사태 경보시스템’ 시행 (로스엔젤레스)
14. 응급상황 시 신속한 시민 보호와 구조를 위한 종합연구에 착수 (독일)

### 도시환경

15. 세계 기후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전시관 개관 (독일 브레머하펜市)
16. 역사(驛舍) 정원 가꾸기 대회인 ‘지하철이 활짝 피었습니다’ 개최 (런던)
17. ‘슈퍼 에코타운’을 조성해 건설폐재류 재활용시설 건립 (도쿄)
18. 고가 철로를 하이라인(High Line) 공원으로 탈바꿈 (뉴욕)
19. ‘폐플라스틱류 매립 제로’를 위한 협정 체결 (도쿄)

### 도시교통

20. 대중교통 선불교통카드 판매처 확대 (런던)
2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市와 민간회사가 공조 (런던)
22. 엑스포 단지에 무료 자전거대여시스템 도입 (상하이)

### 도시계획·주택

23. 750호 규모의 새로운 그린 주택 건설 (런던)

### 1. 청년 예술가 100명에게 지하철 공연기회 제공 (런던)

○ 런던시와 런던교통공사는 공연 데뷔 기회를 잡기 어려운 청년 예술가에게 거리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엮.

- ‘런던의 리듬’ 행사의 일환으로 16~25세 청년 예술가 100명을 뽑아 2009년 7월 11일 하루 동안 런던 지하철 내에서 1인당 20분씩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줌.

- 심사위원회와 시민이 선정한 10명에게는 지하철에서 정기공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부상(副賞)으로 유명가수인 스타이 사인한 기타를 선물함.

- 런던의 리듬 행사는 청소년에게 음악을 즐기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런던시가 준비한 축제로, 2일간에 걸쳐 市 전역에서 펼쳐짐.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619](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619))

([www.london.gov.uk/mayor/culture/childrens-art.jsp](http://www.london.gov.uk/mayor/culture/childrens-art.jsp))

([www.london.gov.uk/rhythmoflondon](http://www.london.gov.uk/rhythmoflondon))

#### >>> 전문가 검토의견

- 젊은 예술가에게 발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함.

· 서울시도 ‘청계천 아티스트’ 등 다양한 거리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젊은 예술가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런던의 리듬’처럼 이벤트로 개최하지는 못했음.

- 다수의 젊은 예술가에게 기회를 주고 시민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는 한편,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런던의 리듬’과 같은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정일이나 주간(週間)을 정해 젊은 예술가 프로젝트로 추진함.

· 과감한 시상으로 참여를 대폭 늘리는 한편, 도시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라도삼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 2. 새로운 아크로폴리스 미술관 개관 (아테네)

○ 2009년 6월 20일 그리스 아테네의 새로운 아크로폴리스 미술관이 유럽 각국의 저명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

- 1937년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세운 옛 아크로폴리스 미술관이 오래전부터 작품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아테네시는 1980년대부터 새로운 미술관을 계획해왔음.
- 몇 번의 공모전을 통해 스위스 건축가 Bernard Tschumi의 설계안이 최종 채택되었고, 11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되었음.
  - 건립비용은 1억 3000만 유로(약 2270억 원)임.
  - 2만 5000m<sup>2</sup> 면적에 3층 구조의 철과 유리로 된 미니멀리즘 양식의 건물로, 아테네 신전 언덕 기슭에 건립하였음.
  - 관람객은 미술관에서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의 신전, 市 전경을 조망할 수 있음.
- 미술관 측은 개관기념으로 2009년 말까지 입장료를 1유로(약 1800원)로 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함.
- 새 미술관 개관을 계기로 아테네시는 1980년대부터 영국에 요구해온 고대 파르테논 유물 반환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그동안 영국은 아테네시에 유물을 보관할 적합한 공간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유물 반환을 거부해왔지만, 새로운 미술관 개관으로 유물을 반환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게 되었음.

([www.faz.net/s/RubEBED639C476B407798B1CE808F1F6632/Doc~E32CAB6EE825A4AB6AE9ADB85641CA8CC~ATpl~Ecommon~Spezial.html](http://www.faz.net/s/RubEBED639C476B407798B1CE808F1F6632/Doc~E32CAB6EE825A4AB6AE9ADB85641CA8CC~ATpl~Ecommon~Spezial.html))

### 한 줄 뉴스

#### ● 북경

- 시민의 치안 만족도가 2005년 87.2%에서 2009년 1/4분기 93.6%로 향상
- 2009년도 국제 여행박람회 기간에 12만 명이 여행상품을 구매하고, 계약체결 금액은 25억 위안(약 4632억 원)을 기록

### 3.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도쿄發·전통 WA 감동’ 페스티벌 개최 (도쿄)

○ 도쿄都是 문화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쿄發·전통 WA 감동’ 페스티벌을 기획함.

- 편리함뿐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쾌적한 환경 등의 매력이 있는 도시야말로 미래를 향해 발전할 수 있음.
  - 자연과 융화해 살아가는 일본인의 ‘和(WA)의 마음’을 후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일본 현 세대의 책무라고 여기지만, 현실에서는 어린이가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
- (재)도쿄都역사문화재단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러 장르의 일류 전통예술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전통예술 페스티벌을 계획함.
  -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본의 전통 문화·예술로 능악(能樂), 희극, 문악(文樂), 가부키(歌舞伎), 방악(邦樂) 등을 들 수 있으며, 지금도 보존되고 있음.
- 전통예술 페스티벌은 2009년 8월 28일부터 11월 21일까지 6회에 걸쳐 국립극장, 박물관 등에서 열림.
  - 어린이에게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세계인에게 도쿄의 문화적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5/20j5t4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5/20j5t400.htm))

### 4. 심포지엄 ‘예술과 환경의 대화’ 개최 (도쿄)

○ 도쿄都是 문화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심포지엄 ‘예술과 환경의 대화’를 기획함.

-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청소년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삼음.
- 공동주최 기관인 도쿄 원더 사이트(Tokyo Wonder Site : 도쿄의 문화·예술을 창조·전파하는 아트센터)에서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가 어떻게 예술가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고찰해 왔음.

· 2009년에는 ‘환경+예술+교육 횡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환경을 주제로 한 전람회와 워크숍을 열기로 함.

- 都와 도쿄 원더 사이트는, 이번 심포지엄이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환경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짚어보고, 그동안의 활동을 검토해 글로벌·로컬 관점에서 환경과 예술의 문제를 생각해보는 장(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www.metro.tokyo.jp/INET/BOSHU/2009/06/22j6h200.htm](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09/06/22j6h200.htm))

## 5. 고대 화석의 외형을 본떠 디자인한 자연사박물관 착공 (상하이)

○ 2009년 6월 26일 상하이 신(新)자연사박물관 착공식이 열렸으며,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 개관을 목표로 함.

- 면적이 4만 5000㎡인 새 박물관은 고대 앵무조개 화석의 외형을 본떠 디자인함.  
· 앵무조개 외관은 국내·외 8개 디자인센터, 디자인 전문학교 등이 제안한 3개안 중에서 채택한 것으로, 전시품목과 가장 잘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받음.  
· 친환경 최신 기술과 소재를 최대한 사용해 타 지역 자연사박물관의 모범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현 자연사박물관은 140여 년 전에 건립되었으며, 앵무조개, 고래 뼈 화석 등 희귀 자연사 유물을 전시하고 있어 중국에서 가장 이름난 자연사박물관임.



앵무조개 외관을 본떠 디자인한 자연사박물관 조감도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5827/userobject21ai346348.html](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5827/userobject21ai346348.html))

### 6. 문화재산권 거래소 설립 (상하이)

○ 문화와 관련된 채권, 주식, 지적재산권 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문화재산권 거래소가 중국 최초로 상하이에 설립되었음.

- 거래 중개기능 외에도 문화산업 투자 안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능도 담당함.
  - 중국 문화부는 문화재산권 거래소의 역할을 문화가치 창조 및 실현, 문화요소 거래, 문화재산권 가치 보존 및 제고, 문화와 자본의 연결, 국내·외 문화요소 간 소통 등 5가지로 제시함.
- 최근 중국에서는 문화산업의 발전에 따라 연예프로그램 재산권, 무형문화재 에이전트권 등이 파생상품처럼 거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게 제기되었는데, 문화재산권 거래소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 市는 200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문화재산권을 거래해 왔음. 2008년에는 거래액이 20억 위안(약 3700억 원)에 달함.
  - 거래소 개설 후 500여 개 국내·외 문화사업체가 상장(上場)되었으며, 이 중 한국과 일본 등 국외 문화사업체도 50여 개에 달함.
  - 향후 국내·외에 분점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며,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구상을 뒷받침할 금융기구로 운영할 예정임.

([dycj.ynet.com/article.jsp?oid=53065959](http://dycj.ynet.com/article.jsp?oid=53065959))

([www.ccnt.gov.cn/xxfb/xwzx/dfdt/200906/t20090619\\_71215.html](http://www.ccnt.gov.cn/xxfb/xwzx/dfdt/200906/t20090619_71215.html))

### 7. 외국인투자자에게 입·출국 편의 제공 (상하이)

○ 상하이市 출입국관리소는 외국 국적의 인재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입·출국 편의 우대정책을 시행할 계획임. 특히 푸둥신구에서는 외국인투자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까지 편의를 제공할 예정임.



- 상하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명예시민’으로 위촉된 외국 국적의 인재는 5년 유효기간의 거류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외국 국적의 고위관료나 저명인사, 과학연구기관 등 주요 기관에서 고용한 외국 국적의 학술연구원과 부원장급 이상의 과학연구원, 첨단기술업체나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산업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과 외국인 투자 수출입업체의 대표, 다국적기업의 상하이지역 본부 및 R&D센터의 대표와 고위간부 등은 35년 유효기간의 거류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외국 국적의 투자자와 인재가 장기 거류를 하지 않을 경우 25년간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는 F방문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7/02/content\_16974228.htm)

## 건강 · 복지

### 8. 쓰지 않는 휴대전화를 기증받아 가정폭력 예방에 활용 (런던)

- 런던시는 쓰지 않는 휴대전화를 기증받아 가정폭력 피해 위험에 처한 시민에게 신고 전용전화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안전지킴이 전화 사업’(Fones for Safety Project)을 시행함.
  - 안전지킴이 전화 사업은 2009년 6월 시가 발표한 가정폭력 대책인 ‘The Way Forward’에 발맞춰 진행하는 사업임.
    - 서더크(Southwark)區와 하운슬로우(Hounslow)區 등 2개 자치구에서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을 마친 뒤 민간업체가 사업을 주관함.
    - 가정폭력 위험에 처한 시민이 관할 경찰서에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시민이 기증한 전화기에 신고기능을 추가함.
  - 시는 이번 사업으로 휴대전화 재활용률도 높이고 가정폭력 피해도 예방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439)

(www.fonesforsafety.co.uk)

## 9. 개관 60주년을 맞은 국제 청소년도서관 (뮌헨)

- 뮌헨市の 블루텐부르크 성에 위치한 ‘국제 청소년도서관’(Internationale Jugendbibliothek)은 세계에서 가장 큰 외국 어린이·청소년 문학작품 수집소로, 2009년 6월 25일 개관 60주년을 맞이함.
  - 1949년에 개관한 이후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국제센터로 성장해왔음.
    - 그동안 ‘독서의 밤’ 행사나 문화 워크숍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도서관, 학교, 문화센터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외국의 문학과 문화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왔음.
    - 이곳에서는 현재 130개의 언어로 된 약 50만 권의 어린이와 청소년 문학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세계 1000여 곳의 출판사로부터 새로운 출간물을 기증받고 있음.
  - 독일연방 가정·여성·청소년부는, 국제 청소년도서관이 독서만 장려한 것이 아니라 60년간 독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국문학과 문화를 교육하였고, 세계 청소년 간 상호 교류와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함.
    - 연방 가정·여성·청소년부는 매년 6000만 유로(약 1000억 원)를 지원하고 있음.

([www.bmfsfj.de/bmfsfj/generator/BMFSFJ/Presse/pressemitteilungen,did=126266.html](http://www.bmfsfj.de/bmfsfj/generator/BMFSFJ/Presse/pressemitteilungen,did=126266.html))

### 한 줄 뉴스

- 런던
  - 런던개발청에서 관광·교통·레저산업 종사자에게 언어와 다문화 교육 무료로 실시
- 독일 드레스덴市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교량 건설을 이유로 드레스덴 ‘엘베계곡’의 세계 문화유산 자격을 박탈

## 10. 실업자를 위해 공공근로 수급현황 정기적으로 발표 (북경)

- 북경시는 2009년도 市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성 일자리 연결 시스템을 개선해 공익성 일자리 가운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일터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함.
- 그동안 市가 공익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일자리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음.
  - 공익성 일자리는 주로 구직에 실패한 실업자에게 교통정리, 치안관리, 농촌 숲 보호, 수질관리, 공공도로 보수 등의 일을 맡기고, 市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함.
- 市 사회보장국과 재정국은 실업자 현황과 공익성 일자리 수요를 정기적으로 알리는 한편, 실업 예비경보시스템을 확립하고, 근로 실태를 조사·감독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단체 근로계약과 단체협상 제도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zhengwu.beijing.gov.cn/gzdt/bmdt/t1058811.htm)

(北京日报, 2009. 6. 20)

## 행정 · 재정

## 11. 수도 캠페인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티 스토어 be Berlin’ 건립 (베를린)

- 베를린의 수도(首都) 캠페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티 스토어(Stadtladen) be Berlin’이 문을 엮.
- 베를린의 관광명소인 하케셔 마르크트(Hackescher Markt) 근처, 면적이 약 100㎡인 이곳에서는 베를린 수도 캠페인의 역사와 활동, 계획을 전시하고, 캠페인에 참여한 많은 기관의 관계자가 모여서 토론하기도 함.
  -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머물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됨.

- 수도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에 응모한 수천 개의 'be Berlin' 슬로건과 베를린을 연상시키는 소품을 이용해 내부공간을 젊고 예술적인 분위기로 꾸몄음.
- 市가 디자인도시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2009년 수도 캠페인을 위한 주요 행사인 '장벽 붕괴 20주년 문화 이벤트' 등에 관한 정보를 이곳에서 얻을 수 있음.
  - 디자이너의 이색적인 작품 전시회도 볼 수 있음. 무엇보다 이곳은 외지인이나 주민의 관점에서 베를린시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공간임.

([www.sei.berlin.de/presse/pressemeldungen/einzelansicht/artikel/be-berlin-eroeffnet-eigenen-stadtladen-im-herzen-berlins/?tx\\_ttnews%5BbackPid%5D=1163&cHash=b639bcafe8](http://www.sei.berlin.de/presse/pressemeldungen/einzelansicht/artikel/be-berlin-eroeffnet-eigenen-stadtladen-im-herzen-berlins/?tx_ttnews%5BbackPid%5D=1163&cHash=b639bcafe8))

## 12. 교외지역과 민생부문에 집중 투자 (북경)

- 북경시는 고정자산 투자 분배계획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09년도 상반기 市정부 누적 투자액수가 217억 위안(약 4조 206억 원)에 달함. 이는 2009년도 예산 집행액의 71%를 넘어선 수치임.
- 市는 교외지역 발전을 위해 2009년 상반기에 96억 위안(약 1조 7787억 원)을 배분했는데, 이는 총투자의 47%를 차지하는 액수임.
  - 이 중 생태발전구역 투자액은 38억 위안(약 7041억 원)에 이룸.
  - 市 신도시 기초 건설 조례와 공공서비스 및 생태환경 조성 실시 의견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에 고정자산 투자를 확대하고 공원과 재생수 처리장을 설치하는 등 교외지역에 더 많이 투자할 예정임.
- 市 발전개혁위원회는 교외지역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며, 도시와 교외지역의 투자비율을 49 : 51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민생 개선을 위한 투자도 市정부 투자의 주요 사항으로, 市는 2009년 상반기 민생부문에 모두 34억 위안(약 6300억 원)을 사용함.

- 문화재 보호구역 내 낙후시설 보수와 골목길 정비, 올림픽박물관과 북경 제1사회복지원 확장 및 개조에 중점 사용함.

(zhengwu.beijing.gov.cn/gzdt/bmdt/t1060882.htm)

## 방재 · 안전

### 13. 새로운 ‘비상사태 경보시스템’ 시행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2009년 6월 18일부터 새로운 ‘비상사태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함.

- ‘LA 카운티 경보’(Alert LA County)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전화하는 911의 반대 개념으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주민 대피가 필요한 경우 가정이나 사업장으로 연락해주는 방식임.

-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한 비상사태 경보시스템보다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비상사태 발생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각 지역의 전화회사에서 710만 대의 일반전화선 리스트를 확보해 종전의 화재위험지구에만 국한되었던 서비스를 확대 시행함.

-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재다이얼되고 부재 시에는 자동으로 메시지가 남겨짐.

(www.latimes.com/news/local/la-me-alert19-2009jun19,0,7245658.story)

### 14. 응급상황 시 신속한 시민 보호와 구조를 위한 종합연구에 착수 (독일)

- 독일연방 교육부는 대형사고, 자연재해, 테러가 빈발해지고 스포츠경기나 콘서트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는 데 반해 시민 보호와 구조

체계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고 보고, 시민 안전 연구프로그램을 마련함.

- 연방 교육부는 우선 5800만 유로(약 1000억 원)의 지원금으로 시민과 구조인력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21개 프로젝트에 착수함.
  - 각 프로젝트는 복합 상황에서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연구함.
  - 연구의 중점과제는 빠르고 정확하고 조직적인 구조인력 투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안내 시스템 개발, 선진적인 시민 대피방안 마련, 신속한 부상자 구조와 치료를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기능과 인공지능 센서를 갖춘 구조인력용 유니폼 개발 등임.
- 연방 교육부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총체적 연구가 되도록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공학 분야의 협동연구로 진행할 계획임.

([www.bmbf.de/press/2601.php](http://www.bmbf.de/press/2601.php))

## 한 줄 뉴스

### ● 도쿄

- 2009년 11월에 열리는 '제6회 도쿄 디자인 마켓'에 전시할 디자인(안) 공모

### ● 상하이

-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공휴일 전후로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 적극 장려
- 2009년 6월 엑스포 공식스폰서 제품 구매 박람회를 열어 3000여 개 제품 전시

## 도시 환경

### 15. 세계 기후를 체험할 수 있는 과학전시관 개관 (독일 브레머하펜市)

- 세계 기후를 체험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과학전시관인 '클리마하우스 브레머하펜'(Klimahaus Bremerhaven 8°Ost)이 2009년 6월 25일 브레머하펜에서 개관함.

- 구름과 배 형태를 연상시키는 미래주의 양식의 유리 건축물인 클리마하우스는, 브레머하펜市가 옛 항만에 새로이 조성한 관광구역인 '하펜월드'(호텔, 전망대, 선박박물관, 바다동물원, 쇼핑몰로 구성된 구역)의 중심을 형성함.



- 건축비는 초기 예상했던 비용보다 많은 1억 유로(약 1750억 원)가 들었음.
- 1만 2000m<sup>2</sup> 규모의 공간에는 4개의 테마 전시관이 있음.
  - '기후여행관'에서는 알프스의 목초 냄새를 맡으며 지구온난화를 체험할 수 있고,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며 별목장으로 변해가는 아프리카 사반나에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으며, 남태평양 사모아제도의 기후변화도 경험할 수 있음. 실제 기후환경을 정확하게 재현해 방문객의 체험도를 높였음.
  - '요소관'은 기후변화 요인과 개별 기후현상 발생, 지구 전체 기후의 복합적인 관련성을 불, 물, 흙, 공기의 4가지 요소를 이용해 관람객이 직접 실험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음.
  - '전망관'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기후변화의 검증된 연구결과를 재현, 전시함.

- ‘기회관’에서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생활습관을 제안하였음.

- 클리마하우스는 알프레드 베게너 극지·대양연구소, 막스 플랑크 기상학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과 독일 기상청의 지원과 협력으로 운영함.

([www.morgenweb.de/nachrichten/wissenschaft/in21635816-klimahaus-bremerhaven-mit-festakt-eroeffnet.html](http://www.morgenweb.de/nachrichten/wissenschaft/in21635816-klimahaus-bremerhaven-mit-festakt-eroeffnet.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 브레머하펜市에서 최근 개관한 ‘세계 기후 체험관’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향후 市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구환경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화두를 여가·문화 개념과 연계해 일상생활에서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주제로 바꿈.
  - 여행과 체험에 바탕을 둔 체험관의 콘텐츠 개발 구상은 시민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완화사업 동참을 유도하는 교육·홍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기후변화 대응은 공공부문의 선도사업 추진으로 초기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으나, 시민 참여가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
- 2009년 5월 제3차 서울 C40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서울 기후 변화 박람회’는 브레머하펜의 세계 기후 체험관과 유사한 전시공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전시 콘텐츠 보완과 함께 전시공간의 상설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월드컵공원의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연계해 체험공간을 마련할 경우, 상암지역은 환경·생태·에너지의 메카지역으로 부상해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음.

/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woonkim@sdi.re.kr)



## 한 줄 뉴스

- 브라질 피라이시  
- 2009년 8월 시 소재 공립학교 전체 학생(6200여 명)에게 컴퓨터 무료 제공
- 브라질 쿠리치마시  
- 겨울철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원에 '겨울시장'을 조성해 상인들이 수공예품과 의류 등을 판매하도록 지원

### 16. 역사(驛舍) 정원 가꾸기 대회인 '지하철이 활짝 피었습니다' 개최 (런던)

○ 런던시는 2009년 런던 지하철 역사(驛舍) 정원 가꾸기 대회를 '지하철이 활짝 피었습니다'(Underground in Bloom)란 주제로 열고, 유명 정원 가꾸기 전문가를 초청해 수상자를 선정하기로 함.

- 역사 정원 가꾸기 대회는 꽃과 나무를 심어 시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경관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함.
  - 연례행사로 진행되는 이 대회에 주제를 부여하고 참여를 독려한 결과 2009년 대회에는 전 부서의 25% 이상이 참가해 사상 최대 참여율을 보임.
  - 정원 가꾸기 대상지는 지하철 역사뿐 아니라 차고지, 통제실 등 지하철 시설 전체임.
  - 이번 대회는 2009년 7월 27일에서 8월 7일까지 열리며, 수상작은 9월 10일 최종 발표함.
- 그동안 기발한 아이디어로 삭막한 역사를 '도시의 오아시스'로 탈바꿈한 사례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음. 특히 과일과 채소로 꾸민 정원이 눈길을 끌었음.
- 현재 런던 지하철역 중 절반 이상이 지상에 역사가 있음. 런던 지하철공사는 이 부지의 일부를 야생동물 서식지로 활용하는데, 이는 런던 시내 야생동물 서식지의 10% 규모임.
  - 생물종 다양성 보전 실천계획도 자체 수립해 시행하고 있음.
  - 비료·농약 사용 최소화, 물 절약, 동물 서식지 보호 등 친환경적으로 정원

을 가꾸도록 홍보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2121.aspx](http://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2121.aspx))

([www.tfl.gov.uk/assets/downloads/LU-Biodiversity-Action-Plan-final.pdf](http://www.tfl.gov.uk/assets/downloads/LU-Biodiversity-Action-Plan-final.pdf))

###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의 지하철 역사 정원 가꾸기 대회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양한 창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참여형 녹지공간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수년에 걸쳐 실시한 지하철역 주변의 생물상 조사를 바탕으로 생물종 다양성 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철 시·중점 부근 외곽지에 집중되어 있는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전하며, 종 다양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점이 특징임.
- 서울시의 경우 선형(線形) 공원 조성, 일부 지하철 내부 실내조경, 지하철 역사 상부 분수 설치, 광장 조성 등과 같은 사례가 있지만, 생물종 보전을 고려한 사례는 거의 없음.
- 지하철 노선과 역 주변 생물상 조사를 바탕으로 복원 및 보전계획을 마련하고 지하철역에서 거주지나 직장까지의 길을 그린 웨이로 꾸민다면, 시민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종 보전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임.
- 지하철 지하공간 녹화가 부족한데, 시민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지하철 내부 지하공간의 실내조경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밀폐되고 삭막한 지하공간을 꽃과 녹음에 싸인 곳으로 변모시켜 쾌적한 환경과 시·후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에게 설계 아이디어를 받고 조경업체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지하공간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임.

/김원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wjkim@sdi.re.kr)

## 17. ‘슈퍼 에코타운’을 조성해 건설폐재류 재활용시설 건립 (도쿄)

○ 도쿄都는 폐기물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환경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순환형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도쿄 임해부의 도유지(都有地)에 ‘슈퍼 에코타운’을 조성해 건설폐재류 재활용시설을 건립함.

- 2006년 7월 2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설폐재류 재활용시설은 부지면적 약 6000㎡, 건평 약 1550㎡ 규모로, 2009년 6월 28일 완공됨.

- 건설폐재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을 일컬음.
- 건물해체 공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는 그동안 노반재로 재활용해 왔음. 재활용시설 건립 이후 일본 최초로 도입한 가열 연마 장치를 이용해 천연 재료에 맞먹는 고품질의 재생 골재를 만들.
- 터널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을 탈수, 고체화하여 입상(粒狀)의 개량 흙으로 만들 수 있음.
- 신기술을 이용해 폐기와와 폐벽돌은 1300톤/일, 건설폐토석은 700톤/일 규모까지 처리함.
- 가열 연마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가루도 고체화제로 활용함.



건설폐재류 재활용시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6/20j6n2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6/20j6n200.htm))

###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의 건설폐재류 재활용시설은,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에코타운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임.

- 도쿄都 임해부에 설치한 재활용시설은 기존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다르게 가열 연마 장치를 활용하여 천연 골재에 버금가는 재생 골재를 생산하고 폐 토석으로 개량 흙을 생산하는 진보된 기술의 적용이 특징임.
- 서울시의 경우 도쿄都 임해부와 같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타 지자체와 마찰을 빚지 않을 부지가 없어 에코타운형의 특화단지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함.
- 우리나라의 순환 골재는 건설폐기물을 이용해 생산한 천연 골재 수준의 재생 골재에 부여하는 정부인증제품으로, 정부 발주 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고가(高價)로 유통되고 있음.

/유기영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keeyy@sdi.re.kr)

## 18. 고가 철로를 하이라인(High Line) 공원으로 탈바꿈 (뉴욕)

- 뉴욕市는, 철거 위기에 놓였던 고가 철로가 하이라인(High Line) 공원으로 재탄생됨에 따라 2009년 6월 9일부터 산책길을 개방함.
  - 이번에 개방한 곳은 하이라인의 세 구역 중 첫 번째 구역으로, 갱스부르가(街)에서 20번가에 이름.
    - 1억 5200만 달러(약 1960억 원)를 들여 조성했으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함.
    - 두 번째 구역은 30번가까지 확장하여 2010년 가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35번가까지 포함하는 세 번째 구역은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임.
  - 고가 철로는 1980년 이후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고, 줄리아니 시장 재임 때 철거가 예정되었음. 하지만 철로 보존을 주장하는 시민 목소리가 커져 블룸버그 시장이 철로를 보존하기로 하고 공원으로 조성함.
    - 철도 운행이 중단된 후 자생적으로 자라났던 100여 종의 식물도 그대로 살림.
- (www.nytimes.com/2009/06/09/arts/design/09highline-RO.html?ref=arts)

## 19. ‘폐플라스틱류 매립 제로’를 위한 협정 체결 (도쿄)

○ 도쿄都是 현재 발생량의 절반을 매립하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추진해 2010년 말까지 ‘폐플라스틱류 매립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이는 최종 처리장인 매립지의 수명 연장을 피하고 순환형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도쿄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06년 현재 도쿄의 폐플라스틱 발생량 57만 톤(일본 전국 498만 톤) 중 매립은 47%(전국 8%), 소각은 27%(전국 31%), 재활용은 25%(전국 61%)로, 전국에 비해 도쿄都의 매립률이 높은 편임.

- 都是 매립량 목표(2009년 11만 톤, 2010년 6만 톤, 2011년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약 80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와 ‘제1회 폐플라스틱류 매립 제로를 위한 협정’을 2009년 6월 26일 맺음.

· 都是 앞으로도 협정 체결업체를 확대해나갈 예정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6/20j6j4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6/20j6j400.htm))

## 도 시 교 통

### 20. 대중교통 선불교통카드 판매처 확대 (런던)

○ 런던市는 선불교통카드인 오이스터 카드(방문자용)를 런던행 저가항공사 이지젯(EasyJet) 항공기 내에서 팔도록 하는 등 교통카드 판매처를 확대함.

-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런던을 방문한 관광객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관광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 이지젯 항공사는 런던 내 3개 공항에 하루 수천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으며,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런던市와 판매 계약을 맺음.

- 이지젯 항공사는 교통카드 판매에 따라 런던 방문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항공사 수익도 커질 것으로 기대함.
- 이번 계약 체결에 영국 관광청이 매개 역할을 했으며, 3개월 계약으로 시범 운영한 다음 계약 연장을 결정할 계획임.
- 교통카드 판매 촉진과 이용 확대를 위해 이지젯에서 구매한 교통카드와 항공권을 제시한 고객에게는 최근 개장한 대형 쇼핑몰 할인쿠폰을 제공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2164.aspx](http://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2164.aspx))

## 2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市와 민간회사가 공조 (런던)

○ 런던市는 민간회사 ‘스카이’(Sky)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를 2009년 9월 20일 열기로 함.

- 런던市와 스카이, 영국 자전거협회는 2008년 한 해 동안 자전거 이용이 9% 늘었지만, 런던에 있는 자전거의 절반은 창고나 정원에 방치되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함.
- ‘스카이라이드’(Skyride)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자전거 타기 장려 이벤트는 런던을 비롯해 맨체스터(Manchester), 글래스고(Glasgow), 레스터(Leicester) 등 4곳의 도시에서 열림.
- 市는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기 위해 2009년 1억 1100만 파운드(2320억 원)를 투자함.
  - 자전거 대여와 자전거 고속도로 계획,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음.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479](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479))

## 22. 엑스포 단지에 무료 자전거대여시스템 도입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10년 엑스포를 맞아 엑스포 단지에 무료 자전거대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

- 상하이市는 300m당 1개소, 총 60개소의 자전거 대여점을 설치하고, 총 1만대의 자전거를 엑스포 관람객에게 제공함.

- 관람객은 자전거를 빌릴 때 20위안(약 3700원)의 보증금을 내지만,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사실상 대여료가 무료임.

· 자전거대여시스템을 유료 관람지역의 티켓 시스템과 연동해 티켓 구매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임.

- 엑스포 단지는 주요 관람지역 간 거리가 최대 10km로, 도보로 관람할 때 약 7시간이 걸리는 등 상하이 엑스포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질 예정임.

(2010.qq.com/a/20090506/000001.htm)

## 도시계획·주택

### 23. 750호 규모의 새로운 그린 주택 건설 (런던)

○ 런던개발청은 템스강 댐(Thames Barrier) 근처 산업 유희지에 750호 규모의 새로운 그린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복합용도 개발로 상업과 소매 공간, 오픈 스페이스, 놀이공간도 조성함.

- 이 중 서민주택을 270호 규모로 공급하며, 방이 3개나 4개인 가족형 주택도 130호 규모로 조성함.

· 그린 주택은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에 따라 지으며, '지속가능한 주택 규약'(Code for Sustainable Homes)의 레벨 4 수준으로 건설함.

· 열병합 시스템을 구축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줄이고 빗물을 보관하여

조경관리에 활용함. 개발공간의 20%는 공공공간으로 이용함.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337](http://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337))

## 한 줄 뉴스

###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엘리오 G. 펠레그리노 예술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신종 플루'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해 거리 이동센터와 24시간 전용전화 운영
- 겨울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패션쇼,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 개최